

영남지역 가사문학의 위상과 현대화의 과제

류해춘*

- 차 례 -

1. 영남지역과 가사의 형성
2. 사대부가사와 경세제민
3. 내방가사와 여성생활
4. 동학가사와 근대의식
5. 가사의 전통계승과 현대화

[국문 초록]

가사는 700여 년간 지속된 전통문화이다. 오늘날 우리는 전통문화인 가사를 계승하면서 현대화하여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가사를 창작하고 낭송하는 전문 작가들을 육성시키고, 가사를 즐기는 청중들과 애호자를 양성하여, 가사를 민족문학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14세기 형성기부터 20세기까지 왕성하게 창작된 가사는 영남지역에서 정착되고 그 뿌리를 내렸다. 14세기 형성기의 가사로는 영남지역 출신이 지은 나옹화상(1320-1376)의 「승원가」와 신득청(1332-1392)의 「역대전리가」 등이 있다. 14세기의 가사는 아직까지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의 작품이라 한자(漢字)를 빌려서 표현한 이두로 기록하거나 구술문화로 전승될 수밖에 없었다. 15-17세기에는 영남지역의 사대부들이 사대부가사를 통해서 한국의 가사문학을 주도해왔으며, 18-19세기에는 그 주도권을 여성들이 이어받아 영남지역의 여성들이 내방가사를 창작하였다. 그리고 19세기 말에는 최제우가 동학가사를 창작하여 새로운 가사문학을 주도하였다.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영남지역의 여성들은 가사의 새로운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내방가사를 열심히 창작하고 경창대회를 통해서 그 역량을 뽐내고 있어 가사문학의 전통계승과 새로운 발전에 그 모범이 되고 있다.

앞으로 가사를 즐기고 향유하는 국민들과 현대가사를 창작하는 새로운 작가들이 없다면, 가사는 우리 시대에 사라지는 문학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전통시가인 하이쿠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그 위상을 뽐내며 자랑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이 제도적인 장치로 많은 자원을 투자하여 하이쿠를 육성하고 보급하여 그 노래를 즐기고 향유하는 계층이

전 세계에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 영남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가사문학의 현대적 계승을 위해서 국가와 영남지역의 각 지방단체는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사는 원래 낭송(朗誦)이나 가창(歌唱)되는 전통문화로 소리와 문자가 융합된 문화콘텐츠이다. 지금까지 소리와 문자가 함께 어울려서 창작하고 지속되던 가사를, 미래에도 우리는 소리와 문자가 병행하는 현대가사의 문화콘텐츠로 승화시켜서, 우리 민족이 지속적으로 가사를 창작하고 낭송하며 노래하도록 지원하여야겠다. 우리의 전통문화인 가사가 아무리 훌륭한 멋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여도 우리가 계승하여 보존하지 못하면 사라질 것이다.

주제어 : 가사, 영남지역, 민족문화, 현대화, 전통문화, 현대가사, 전통시가

1. 영남지역과 가사의 형성

영남을 읽으면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 이 말은 영남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면, 한국 사회가 나아갈 미래의 역사와 문화를 예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문학에서도 영남지역의 문학은 신라시대에 향찰(鄕札)로 표기된 향가를 시작으로 하여, 고려시대에는 고려가요를 거쳐서, 조선시대에는 시조와 가사 등으로 그 중요한 맥락을 이어면서, 한국문학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가사는 고려말기에 형성되어 조선시대에는 모든 백성들이 활발하게 창작한 우리민족의 고유한 문학 갈래이다. 가사의 역사를 고찰하려면, 먼저 어느 시기에 누가 가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작품을 창작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가사는 장시의 형식을 빌리고 생활체험

을 서술하는 이야기가 덧붙태어져서, 시조보다 더 자세하게 개인의 정서나 감성을 서술하여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왔다.

가사와 시조는 우리 선조들이 향유하였던 문학의 갈래로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갈래이다. 가사는 서정장시의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시조는 짧은 정형시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 시조와 가사는 이렇게 서로 차이를 지니고 있으나, 그 표현의 방법에서는 4음보 1행의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시조가 4음보 3행으로 창작된 정형시라면, 가사는 4음보 1행을 무제한으로 연속하는 서정장시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

시조의 내용을 한 글자로 표현하여 흥(興)이라고 한다면, 가사의 내용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술(述)이라고 할 수 있다. 시조의 내용을 두 글자로 표현하여 감흥(感興)이라고 한다면, 가사의 내용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서술(敍述)이라 할 수 있다. 시조의 형식을 세 글자로 표현하여 정형시(定型詩)라면, 가사는 서정시(抒情詩)이면서 수필에 가까운 서정장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 선조들은 시조와 가사를 네 글자로 요약하여 시조를 시절가조(時節歌調)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가사를 시사평론(時事評論)이라고도 명명하기도 하였다.¹⁾

가사의 흐름과 그 전개를 살펴보려면 가사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 가사의 발생 시기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고려시대의 말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한국문학에서 가사는 사부(辭賦), 초사(楚辭) 등의 한시체(漢詩體)를 현토하면서, 낭송하거나 음영하는 형식을 지닌 구술문화의 영향을 기초로 하고, 긴 민요의 형식을 수용하여 성장하고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1) 류해춘, 「시조와 가사의 향유방식과 그 관련양상」, 『시조학논총』 44집, 2016, 165-195면 참조.

고려말기부터 가사는 구술문화나 이두(吏讀)나 향찰 등의 문자로 전승되다가 15세기 훈민정음의 창제이후에 한글로 정착되었다. 14세기의 작품으로 이두표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사로는 나옹화상(1320-1376)의 「승원가」와 신득청(1332-1392)의 「역대전리가」가 그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14세기의 가사는 아직까지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의 작품이라 한자(漢字)를 빌려서 표현한 이두로 기록하거나 구술문화로 전승될 수밖에 없었다. 15세기 한글창제 이후에 국문으로 기록된 가사에는 이두표기로 전해오는 「승원가」, 「역대전리가」와 구전으로 전하다가 시간이 흘러 한글로 기록된 「서왕가」와 「상춘곡」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수 세기의 시간이 흘러 이들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여도 우리들이 그 역사적 기록이나 존재자체를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가사의 형성에 대해서는 고려말기 형성설²⁾과 조선전기 형성설³⁾이 제기되어 논란이 있었다. 고려말기 형성설은 나옹화상의 「서왕가」와 「승원가」와 신득청의 「역대전리가」 등이 지어져서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14세기의 작품인 「서왕가」와 「승원가」는 승려의 작품이고, 「역대전리가」는 사대부의 작품이다. 가사문학의 형성기에 사대부와 승려가 창작한 고려말기의 작품들이 있어서, 이 작품을 다 함께 형성기의 가사로 인정하는 것이 무난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사대부인 신득청이 지은 사대부가사와 승려인 나옹화상이 불교가사는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갈래의 형성을 위주로 하는 15세기 「상춘곡」의 발생설은 한글의 창제 이후에 가사가 한글로 기록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사의 15세기 발생설은 정극인(1401-1481)이 지은 「상춘곡」을 처음의 작품으

2) 백철, 이병기,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57, 108-109면.

3) 윤제, 『조선시가가사강』, 박문출판사, 1937, 225면.
조운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5, 169-176면.

로 여기는 것이다. 가사의 한글 표기와 그 갈래의 형성을 위주로 하는 15세기 발생설은 한글의 창제 이후에 가사가 한글로 기록되었다는 시점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가사라는 갈래의 형성을 기준으로 하는 15세기보다는 구체적인 작품이 등장하는 고려말기인 14세기를 가사의 형성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대부분⁴⁾이라 할 수 있다. 14세기의 작품에는 승려가 지은 「서왕가」와 「승원가」 등과 사대부가 지은 「역대전리가」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14세기 가사의 형성기에는 사대부계층과 승려계층이 함께 가사의 창작에 힘을 쏟았다고 할 수 있다.

15세기에 이르러서 가사는 사대부들이 주도하는 갈래가 되었다. 사대부들은 가사를 통해서 유학자의 자연미와 경세제민의 정신을 마음껏 과시하였다. 이시기의 사대부들은 전원생활을 하면서 자연미의 발견을 노래하는 강호가도라는 녹색정신의 가사를 많이 창작하였다.⁵⁾ 15세기 이후에 시조와 가사를 창작한 작가들은 세종대왕의 한글창제(1443)로 이전의 작품보다 신속하게 한글이라는 소리글자로 기록되고 정착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고려말기에 생성된 가사도 구비로 전승되다가 한글이나 이두(吏讀)로 기록된 후에 다시 국문으로 정착되었다.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인 14세기에 이두로 표현된 가사로는 나옹화상(1320-1376)의 「승원가」와 신득청(1332-1392)의 「역대전리가」가 있어 형성기에 창작된 초기 가사의 작품이다.

14세기에 이두로 지어진 「승원가」의 작가인 나옹화상과 「역대전리가」의 작가인 신득청은 경상도의 영덕(盈德)지역인 영해(寧海)에서

4) 박성의, 『한국가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47-110 참조.

서원섭, 『가사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78 참조.

김문기, 「가사문학발생고」, 『국어교육연구』 4집, 1972, 91-116면.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1988, 196-205 참조.

류연석, 『한국가사문학사』, 국학자료원, 1994, 79면.

류해춘, 「16·17세기 사대부가사 연구」, 『가사문학의 미학』, 2009, 298면 참조.

5) 류해춘, 「15세기 자연시가에 나타난 녹색담론」, 『국학연구논총』 17집, 2016, 229-250면.

태어나 성장하였다. 현재 노계문학관이 자리잡은 영천과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 영남지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었을 때 영덕지방은 안동문화권과 경주문화권에 가까운 신라문화권에 속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나옹화상이 지은 「서왕가」는 1704년(숙종30년)에 경북 예천 용문사(龍門寺)에서 간행한 판본이 가장 오래 되었다. 이 「서왕가」는 이두가 아닌 한글로 기록되어 다른 작품보다 더 주목을 받으며 가사의 효시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불교의 교리를 노래하는 나옹화상(1320-1376)이 지은 「승원가」와 「서왕가」는 나옹화상의 생몰연대와 관련해서 14세기말(1376)년 이전에 지어졌다고 할 수 있다.

사대부이며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인 신득청(1332-1392)은 1371년 「역대전리가」를 지어서 올바른 왕도를 세우기 위해서 공민왕에게 바쳤다고 한다.⁶⁾ 나옹화상의 「서왕가」는 구전되다가 18세기에 문헌에 정착한 한글로 된 가사이고, 신득청의 「역대전리가」와 나옹화상의 「승원가」는 이두형식으로 기록되어 전하고 있다. 14세기 말에 지어진 이들 작품은 한글이 제정되지 않아 한자를 차용한 이두문자로 표기되거나 구술문화로 전승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10여종의 이본으로 전하는 「서왕가」나 이두표기로 전하는 「승원가」와 「역대전리가」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그 전체적인 내용과 역사적 기록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초기가사의 작가들은 영남사람이면서 신라문화권에 속하는 영해(寧海) 지역 출신의 신득청과 나옹화상이다. 이러한 사실은 영남지역이 가사의 발생지요, 출발지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⁷⁾ 나옹화상과 신득청은 14세기에 영덕에서 태어나고 고려말기인 공민왕(恭愍王, 1330-1374)과 우왕(禔王, 1365-1389)의 시기에 사상과 종교

6) 정재호, 『한국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74면.

7) 이임수, 「「역대전리가」와 형성기의 가사문학고」, 『우리말글』 47호, 2009, 306면 참조.

는 다르지만 조정에서 추앙받았던 인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사문학의 출발지와 발생지는 영남지역이며 더 좁혀서는 경주와 안동을 배경으로 하는 신라문화권이라 할 수 있다.

2. 사대부가사와 경세제민

가사는 고려말기인 14세기 후반기에 형성되어, 16세기부터는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 활발하게 창작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학 갈래이다. 사대부가사의 형식은 3·4조 혹은 4·4조를 기본 율조(律調)로 하여 4음보 1행의 율격(律格)을 100행 내외로 연속할 수 있는 시가이다. 사대부가사란 이러한 가사의 형식적인 개념과 함께 조선시대의 지배계층인 사대부가 지은 가사를 의미한다.⁸⁾ 사대부가사는 양반가사라고 불리어지기도 했으나, 지금은 사대부가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사대부들은 대체로 관직을 차지하고 있거나 관직을 차지할 수 있는 지배계층의 사회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사대부들은 학문과 더불어 다양한 취미생활로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창작하는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사대부들은 가사를 창작하여 시대적 어려움을 재현해내는 동시에 새롭게 나타난 복잡한 사회현실의 문제를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사대부들은 복잡한 사회현실의 문제를 시조나 한시로 나타내기도 했으나, 비교적 짧은 서정시를 통해서 자신들의 변화된 현실인식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사대부들은 당시 자신들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복잡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이미 존

8) 류해춘, 「16·17세기 사대부가사 연구」, 『가사문학의 미학』, 보고사, 2009, 306면 참조.

재하고 있었던 서정장시의 긴 노래 양식인 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영남지역 사대부들은 이 지역 출신인 14세기의 신득청과 나옹화상의 가사 창작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15세기에도 사대부들이 가사를 창작하였다. 16세기의 사대부가사는 집권층인 사대부의 풍류와 멋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경세제민의 사상과 생활체험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문학의 양식으로 성장하고 발전한 가사를 많이 창작하였다. 이 시기의 사대부가사는 사대부가 성리학적 이념을 표현하면서 전원으로 돌아와 선비의 풍류와 멋을 구현하며 경세제민을 표현하는 작품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17세기의 사대부가사는 자연미를 발견하고 강호가도를 노래하는 작품을 상대적으로 많이 창작하고 있다. 그러나 사대부가사는 임병양란을 거치면서 그 성격이 다양하게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그 원인은 전쟁과 당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사건들의 전개로 인해 소재의 선택범위가 폭넓게 되었고, 사대부들이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짝트게 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작가는 임진왜란에 참전한 노계 박인로(1561-1642)로서 11편의 가사를 창작했고, 그는 초기의 실학정신을 바탕으로 경세제민의 사상을 표현하는 사실주의 문학을 개척하였다. 그의 작품에는 「태평사」, 「선상탄」, 「누항사」 등에서 전쟁체험과 생활 체험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한국문학사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⁹⁾ 17세기 이전에 지어진 한국의 사대부가사는 60여 편이 되는데 그 중에서 영남지역의 사대부가 지은 가사가 30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가사를 일람표로 만들어서 그 작품의 내용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 류해춘, 「임진왜란의 충격과 가사문학의 변모」, 『가사문학의 미학』, 2009, 457-487면.

류해춘, 「17세기 가사에 나타난 선비의 성격변화」, 『문학과언어』 12집, 1991.

17세기 이전의 영남지역 사대부가사

작 가	작 품	창작연대	출 전 (배경지역)	주제(모티프)
신득청 1332-1392	역대전리가	1371	화해사전 영덕	도덕과 교화(역사)
이인형 1436-1504	매창월가	1475경	매헌선생실기 진주	산수와 풍류(자연)
조위 1454-1503	만분가	1503	잡동산이 김천,순천	사모와 찬송(유배)
이황 1501-1570	퇴계가 (환산별곡)		필사본 안동	산수와 풍류(자연)
	금보가(금부가)		필사본 안동	도덕과 교화(교훈)
	상저가(옹저가)		필사본 안동	도덕과 교화(교훈)
	도덕가(궐리가)		필사본 안동	도덕과 교화(교훈)
	효우가		필사본 안동	도덕과 교화(교훈)
조식 1501-1572	권선지로가		필사본 합천	도덕과 교화(교훈)
고응척 1531-1605	도산가	1592	악부 구미, 안동	산수와 풍류(자연)
최현 1563-1640	용사음	1597 전	인재속집 상주	비판과 우국(전쟁)
	명월음	1597 전	인재속집 상주	사모와 찬송(임금)
백수회 1574-1642	재일본장가	1600경	송담집 양산	비판과 우국(조선)
안인수 (선조 대)	안인수가	1600경	송담집	사모와 찬송(고향)
박인로 1561-1642	태평사	1598	노계집 영천	비판과 우국(전쟁)
	선상탄	1605	노계집 부산	비판과 우국(전쟁)
	사제곡	1611	노계집 남양주	산수와 풍류(자연)
	누항사	1611	노계집 남양주	비판과 우국(사회)
	소유정가	1617경	필사본 대구	산수와 풍류(자연)

	독락당	1619	노계집	경주	사모와 찬송(인물)
	입암별곡	1629	필사본	포항	산수와 풍류(자연)
	영남가	1629	노계집	영남	사모와 찬송(인물)
	상사곡	1632	영양약증	상주	사모와 찬송(인물)
	권주가	1632	영양약증	선산	산수와 풍류(풍류)
	노계가	1636	노계집	영천	산수와 풍류(자연)
김득연 1555-1637	지수정가	1615경	갈봉유고 등	안동	산수와 풍류(자연)
조우인 1561-1625	출새곡	1616	이재영언	서울	산수와 풍류(기행)
	관동속별곡	1623 전	이재영언	관동	산수와 풍류(기행)
	자도사	1623	이재영언	상주	사모와 찬송(임금)
	매호별곡	1624	이재영언	상주	산수와 풍류(자연)
채득기 1605-1646	봉산곡	1638	우담별집	상주	산수와 풍류(자연)
김충선 1571-1642	모하당술회가	1642	필사본	대구	비판과 우국(인물)
임유후 1601-1673	목동문답가	1661	필사본	울진	도덕과 교화(교훈)

이런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영남지역은 조선시대 경세제민을 표현하는 사대부가사의 주된 창작과 향유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의 표에 나타난 사대부가사의 주제와 그 내용은 ‘산수와 풍류’, ‘도덕과 교화’ 그리고 ‘사모와 찬송’, ‘비판과 우국’의 4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내용은 사대부가 국가를 경영하는 철학인 경세제민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성이 매우 깊은 내용이다. 이처럼 이 시기의 사대부가사는 인간사회와 산수자연을 소재로 하여 다양한 체험을 가사로 노래하

면서 경세제민의 철학을 함께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대부가사에 나타난 작품들의 내용과 형성동인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1. 산수와 풍류

조선시대의 토지제도는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와 달리 고향을 근거지로 땅을 나누어주는 과전제도를 실시하였다.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은 정치의 현실에서 물러나오면 고향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전원생활을 하였다. 그들은 벼슬을 은퇴하면 고향으로 돌아와 자연을 감상하고 풍류를 즐기고 있었다. 사대부들이 산수와 자연을 감상하거나 일정한 지역으로 여행을 하는 사대부가사의 작품에는 ‘산수와 풍류’의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사대부가사에는 사대부들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자연을 벗하며 심리적으로 한가롭게 살고자하는 조선조 사대부들의 세계관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작품에는 「매창월가」, 「도산가」, 「사제곡」, 「소유정가」, 「입암별곡」, 「노계가」, 「지수정가」, 「출새곡」, 「관동속별곡」, 「매호별곡」, 「봉산곡」 등의 가사가 있다. 이들 가사에는 첫째로 정자나 누대를 중심으로 주위의 경치를 읊고 있는 작품이 많다. 누대를 중심으로 자연을 완상하는 작품으로는 「노계가」, 「소유정가」, 「지수정가」, 「봉산곡」 등이 있다. 다음에는 일정한 지역에 들어와서 그 주변의 산수와 자연을 완상하면서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매창월가」, 「매호별곡」, 「도산가」, 「사제곡」, 「입암별곡」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인의 몸으로 일정한 지역을 여행하고 관료의 신분으로 산수자연과 함께 풍류를 즐기는 「출새곡」, 「관동속별곡」 등의 작품이 있다.

이처럼 사대부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산수자연을 벗하며 자신들의 감회와 정서를 가사에 담아 노래하였다. 그리고 왕명을 받아 벼슬

길에 오르면 그 곳의 풍물과 자연을 노래하는 가사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이런 유형의 작품에는 모두가 산을 찾고 물을 즐기는 풍류의 정신을 담고 있으며 시인의 몸과 마음이 더 넓고 더 높게 자연과 동화되어 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2.2. 사모와 찬송

사대부가사에는 임금이나 선인들의 업적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작품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봉건사회의 유교사상이 지배하였던 사회였기에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선인들의 훌륭한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모와 찬송’의 가사 작품이 많이 지어졌다. 유배가사에서는 정치인인 사대부가 유배생활의 불합리함을 비판하며 간신들의 이야기를 임금에게 고발하며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사대부가사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사대부는 자신이 존경하는 선인들의 훌륭한 학문과 정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내용의 작품도 ‘사모와 찬송’의 모티프를 애용하여 창작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작품에는 「만분가」, 「명월음」, 「자도사」, 「독락당」, 「영남가」 등의 작품이 있다. 먼저 왕에 대한 충성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에는 「만분가」, 「자도사」, 「명월음」 등이 있으며, 선인들의 학문과 그 뜻을 사모하고 찬송하는 작품에는 「영남가」와 「독락당」 등의 작품이 있다. 조우인의 「자도사」는 유배가사로 정철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의 영향¹⁰⁾을 받아 지은 작품이다. 이러한 주제와 내용의 작품들은 선인이나 임금의 학문과 선정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시인의 감정을 표현하여 자아실현과 소원의 성취를 희망하고 있다.

10) 김명만, 「조우인의 가사집 이재영언」, 『어문학』 10집, 1963, 79면.

2.3. 도덕과 교화

유학을 숭상하는 조선사회에서 사대부들은 소년과 백성들에게 학문수양의 방법과 삶의 윤리를 가사를 통하여 가르치기도 하였다. 이 시기 사대부가사의 대부분이 교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내용이 인륜의 교화와 도덕에 관계가 있고 주제가 교훈적인 것을 ‘도덕과 교화’의 모티프에 포함시켜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 시기 영남에는 퇴계와 남명이라는 큰 유학자가 활동하였다. 사대부가사에는 퇴계와 남명이라는 큰 유학자가 있었기에 뒤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작가와 작품을 뒤섞어서 창작한 작가가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작가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어 가고 있다.¹¹⁾ 이 시기에 지어진 작품의 작가가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한글로 된 가사가 낭송이나 기록으로 전해오지만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이라는 권리가 없는 전통사회에서 놀이 문화의 한 유형으로 전승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도덕과 교화’를 노래하는 작품에는 「권선지로가」, 「금보가」, 「상저가」, 「도덕가」, 「효우가」, 「목동문답가」 등의 작품이 있다. 이들 작품은 작가가 청자를 어린이로 설정하느냐 백성들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작가가 소년들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작품으로는 「금보가」, 「효우가」, 「목동문답가」 등이 있다. 이들 작품은 청자를 어린이나 아이들로 설정하여 성리학의 근원이 되는 도학을 닦아서 삶에서 올바른 길을 따라서 나아가자는 교훈을 설파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작품으로는 「권선지로가」, 「상저가」, 「도덕가」 등이 있다. 이 유형의 작품들은 작가가 청자를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도덕가」는 벗님이고, 「권선지로가」는 사람이며,

11) 이동영, 「퇴계의 가사소작설 변정」, 『한국문학논총』 5, 1982, 39-57면.

「도덕가」는 청자가 계장(契長)으로 되어 있어서, 작가가 일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작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16세기 영남에는 이황과 조식과 같은 뛰어난 성리학자들이 백성과 소년들에게 도학을 널리 전하고자 경세제민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대부가사를 지었다. 유학자인 사대부가사의 작가들은 처음부터 소년과 백성들에게 유교의 덕목과 인륜을 가르치기 위하여 가사를 창작하고 활용하였다.

2.4. 비판과 우국

임진왜란은 동아시아에 존재했던 봉건사회의 질서를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임진왜란을 체험하면서 사대부들은 전쟁의 경험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가사를 창작하였다. 이러한 가사는 사실주의와 실학정신의 표현하여 작가의 개인체험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임진왜란 이전에 지어졌던 관념적이며 사변적인 사대부가사와는 그 표현이 변모하여 사대부가사가 새롭게 경험론적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가사문학에는 ‘비판과 우국’의 주제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전쟁을 체험한 사대부들은 전란의 피해로 국가의 존망을 걱정하면서 기존의 생각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새로운 의식을 지니기 시작하였다. 전쟁의 후유증을 겪으면서 사대부들은 삶의 기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일부 사대부들은 사회현상에 대해 반성의 기운을 제고하고 성리학의 이론에 대해서도 반성하며 현실적인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문인 실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사대부가사에는 사회현실을 비판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표현하는 작품이 등장하게 되

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사대부가사로는 박인로의 「누항사」, 「선상탄」, 「태평사」, 최현의 「용사음」, 백수회의 「재일본장가」, 안인수의 「안인수가」, 김충선의 「모하당술회가」 등이 있다.¹²⁾ 이들 작품은 전쟁의 상황을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증계하고 표현하는 「용사음」, 「태평사」, 「선상탄」 등의 작품이 있고, 전쟁을 체험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회고하면서 반성하는 내용을 서술하는 「누항사」, 「재일본장가」, 「모하당술회가」 등의 작품이 있다.

이러한 작품에는 당시의 사대부가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체험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사회현실을 극복하고자하는 경세제민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사대부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임진왜란의 충격을 현장감 있게 표현하고 묘사하여 조선시대의 체제모순을 비판하면서 일본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표현하여 애국정신을 표출하는 가사를 창작하고 있다.

이처럼 임진왜란은 조선전기 사회가 내포하고 있었던 모순을 더욱 드러내어 봉건사회의 질서를 뒤바꾸어 놓았다. 임진왜란 전후에 창작한 16-17세기에 창작한 60여 편의 사대부가사 중에서 50%가 넘는 30편 이상의 가사가 영남지역에서 창작되었다. 이 시기 영남지역의 사대부가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 가사문학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는 15세기 이전에 지어진 영남지역의 가사와 16-17세기 사대부가사가 지닌 내용의 전승과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5세기 이

12) 정재호, 「임진왜란과 가사」, 『한국가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371-412면 참조.

류해춘, 「임진왜란의 충격과 가사문학의 변모」, 『가사문학의 미학』, 보고서, 2009, 457-487면 참조.

전에 지어진 사대부가사에는 「역대전리가」와 「매창월가」가 있다. 14세기의 「역대전리가」는 ‘교화와 도덕’의 주제를 표현하고 있으며, 15세기의 「매창월가」는 ‘산수와 풍류’의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16세기의 사대부가사는 15세기 이전의 사대부가사가 지니는 주제와 내용을 계승하고 있으며 ‘비판과 우국’의 주제와 ‘사모와 찬송’의 주제를 새롭게 등장시키고 있다. 17세기 사대부가사는 16세기에 이루어진 주제와 내용을 모두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16세기에는 한국의 대유학자인 이황(1501-1570)과 조식(1501-1572)이 가사를 창작하여 ‘교화와 도덕’의 주제도 많이 유행했고, 한편 다른 작가들은 ‘산수와 풍류’를 노래하는 가사를 많이 창작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사대부가사는 17세기까지가 그 전성기이며, 사대부가 지닌 경세제민의 철학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 많이 창작된 시기라 할 수 있다.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서 11편의 사대부가사를 창작한 박인로(1561-1642)는 「태평사」, 「선상탄」, 「누항사」 등의 전쟁체험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가사를 창작하여 이 시기 가사의 변화를 주도하였다. 특히 「누항사」에서는 임진왜란 이후에 사대부가 경험한 궁핍한 농촌생활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경험론적 세계관과 관념적인 세계관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에 사대부의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해학적이며 풍자적으로 표현한 이 작품은 사대부들의 세계관이 임진왜란 후에는 관념론에서 경험론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증거가 되고 있다.

17세기의 사대부가사는 사대부들의 변화된 경험론의 세계관인 실학정신을 다른 문학의 갈래보다도 한결음 앞서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창작기법은 조선후기의 서민가사와 내방가사로 이어지고 있어 18세기 가사에 나타난 형식과 내용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까지 경세제민의 철학을 지니고 영남지역에서 성행한

사대부가사는 18세기부터는 영남지역의 여성들에게까지 전파되고 계승되어서 내방가사라는 새로운 여성문학을 탄생하게 하였다.

3. 내방가사와 여성생활

조선시대는 유교사회였다. 영남지역의 여성들은 영남의 양반사대부가 지향했던 유교사회의 이념을 철저히 따르며 생활하였다. 경세제민을 경영철학으로 내세운 사대부들은 조선시대 영남지역의 여성들에게 유교사회의 윤리도덕을 철저히 실천하도록 하였다. 내방가사는 조선후기에 영남지역에서 생활한 사대부의 여성들이 주로 창작하고 향유한 여성문학이라 할 수 있다. 내방가사는 규방가사, 여성가사, 여류가사 등의 이름으로 불리어지기도 한다. 여기서는 현재 영남지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내방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내방가사에 나타난 영남지방의 부녀자들은 유교사회의 도덕교훈을 노래하며 가문과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였지만, 실제 생활에서 체험한 억눌린 감정과 애처로운 마음을 반항적 입장에서 사실적으로 표출하기도 하였다.¹³⁾

내방가사는 작가와 창작연대가 확실하게 밝혀진 작품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인 18-19세기에 나타난 사회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조선후기의 가사는 작가와 그 계층에 따라 사대부가사, 서민가사, 내방가사 등으로 그 갈래가 확실하게 나누어진 다. 사대부 가문의 여성들이 주로 창작했던 내방가사도 조선후기 사회문화의 현실과 관련을 맺으면서 다양하게 변화되는 새로운 모습을

13) 권영철, 『규방가사각론』, 형설출판사, 1986, 9면.

보여준다.¹⁴⁾

조선후기 내방가사는 사대부 여성들을 가사의 작가로 부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대부의 여성들이 지녔던 관념의 세계에다가 여성들의 체험과 그 경험을 덧붙여서 표현한 여성문학이다. 내방가사의 작가가 반드시 여자인 것만은 아니다. 남자가 지은 작품도 작가가 잊혀진 채로 내방가사에 편입될 수 있어서 내방가사는 향유자와 수용자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사대부가문의 여성들은 내방가사에서 마땅한 행실에 대한 윤리와 교양을 얻으면서 국문을 익히고 사회의 지식을 배웠으며 문장력을 가다듬었다.

내방가사의 생성과 그 기원을 추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허난설헌(許蘭雪軒, 1563 - 1589)이 지었다는 「규원가」(閨怨歌)와 「봉선화가」(鳳仙花歌)를 선구적인 작품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17세기의 내방가사들과 서로 전승관계가 연결되지 않고 있다.¹⁵⁾ 17세기에는 어떤 작품들이 존재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 영남지방의 내방가사가 18세기에 두루 지어졌다는 사실은 알려진 사실이다. 안동권씨가 지은 「반묘화전가」는 1746년¹⁶⁾에 창작되었고, 「절명사」는 1748년에 전의이씨¹⁷⁾에 의해서 지어졌으며, 연안이씨가 지은 「쌍벽가」는 1794년에 창작¹⁸⁾되었으므로 영남지역의 여러 마을에서는 18세기에 내방가사가 두루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가사에는 18세기 부녀자들이 가사를 창작하고 향유하던 관습이 담겨 있어 여성문학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8세기 이후에 지어진 많은 내방가사의 작품들도 작가와 연대가

14) 류해춘, 『가사문학의 미학』, 보고사, 2009, 15-17면.

15) 이혜순, 「규원가·봉선화가의 작가고」, 『백영정병욱교수환갑기념논총』, 1982, 341-352면.

16) 이원주, 「잡록과 반묘화전가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7, 1980, 37-51면.

17) 홍재휴, 「전의이씨 유문고」, 『국어교육논지』, 대구교육대학, 1973, 9-27면.

18) 권영철, 「쌍벽가 연구」, 『상산 이재수박사환력기념논문집』, 1972.

밝혀진 작품은 많지 않다. 여기서는 내방가사의 유형을 나누고 각 유형의 특징을 통해서 영남지역에서 유행한 내방가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내방가사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시집가는 일을 앞둔 딸에게 시집살이의 교훈을 가르치는 ‘계녀가류 가사’와 여성들의 놀이문화를 즐기는 ‘화전가류 가사’ 그리고 여성들의 신세를 한탄하는 ‘탄식가류의 가사’ 등 3가지의 유형으로 많이 나누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계녀가류 가사를 교훈도덕 가사¹⁹⁾라고 부르려고 하며, 탄식가류 가사를 신변탄식²⁰⁾ 가사라고 하고, 화전가류 가사를 놀이문화 가사²¹⁾ 등으로 부르려고 한다. 이들 세 유형의 가사는 서로 다른 형식과 내용의 특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문학적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내방가사를 향유하고 창작한 여성들은 여성교육을 위하여 딸에게 유교적 덕목을 전달하는 어머니였으며, 조선후기 봉건사회에서 남성보다는 많은 노동을 하며 생활해야 하는 자신들의 신세를 탄식하는 여성이기도 하였고, 가사노동에서 벗어난 여가생활로 화전놀이를 즐기며 지냈던 여성이기도 하였다. 세 가지의 유형에 등장하는 내방가사의 향유층은 각각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선후기를 살았던 전체 여성 모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3.1. 교훈도덕 가사

도덕교훈 가사는 내방가사의 한 갈래로 시집가는 딸이나 여성들에게 교훈이 되는 도덕이나 시집살이의 규범을 가르칠 목적으로 지어진

19) 이정옥, 『내방가사 현장연구』, 역락, 2017, 107면 참조.

20) 권영철, 『규방가사 각론』, 형설출판사, 1986, 14면.

21) 류해춘, 「규방가사에 나타난 놀이문화와 경제활동」, 『국학연구론총』15집, 2015, 81-109면.

가사를 말한다. 가사의 제목은 「계녀가」, 「계녀사」, 「계아가」, 「경계가」, 「여아경계가」, 「교녀가」, 「교훈가」, 「여자유행가」, 「규중가」, 「규중행실가」, 「훈계가」, 「귀녀가」, 「경계초」, 「여자행신법」, 「복선화음가」, 「훈시가」, 「규문전회록」, 「행실교훈가」 등으로 다양하다. 도덕교훈 가사는 여성에게 유교의 규범을 주지시키려는 남성의 의도와도 서로 맞아 떨어져서 일찍이 18세기에 유행한 내방가사로 보인다.

이 가사의 담당층인 사대부 가문의 여성은 18세기 이후에 정계에서 실각한 영남사족과 남인계 가문에서 성장하거나 남인계 가문으로 출가한 인물들이 많다. 이들은 새롭게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한다는 막중한 책임과 그 의무를 부여받았다. 사대부의 남성들은 이러한 의무와 책임의 메시지를 계녀가류 가사를 통해 여성에게 교육하고 전승시키려고 했다. 18세기 이후 향촌의 사족들에게 주어지는 가문결속의 현상에는 급변하는 정치와 경제의 상황 속에서 향촌사족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가족윤리와 가문윤리를 강화²²⁾하려는 역사적 맥락과도 서로 연관성이 있다.

18-19세기에는 도덕교훈 가사인 계녀가류의 가사가 성행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문학적 소재를 다방면에서 얻은 신변탄식의 가사인 「자탄가」, 「노처녀가」, 「백발가」 등의 작품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내방가사는 형식도 정제되고 묘사도 발전되었으며 공동체 작으로 보이는 작품도 등장하였다. 19세기에는 소설과 산문의 성행으로 서사문학의 비중이 크게 성장하여 내방가사에도 교훈의 내용을 강하게 드러내는 서사적인 작품이 자주 등장하게 된다.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위상을 인식한 사대부 남성들은 가문의 부흥을 위해서 여성교육이 필요함을 통감하였다. 도덕교훈 가사인 계녀가류의 가사는 여성의 교화

22) 김창원, 「18-19세기 향촌사족의 가문 결속과 가사의 소통」,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307면 참조.

라는 남성중심 가계에서 가문부흥의 창작동기에서 발생하였으나, 세월이 흘러갈수록 남성에 의한 여성의 교화가 아닌, 여성에 의한 여성의 교화가 주가 되는 내방가사가 성행하게 된다. 도덕교훈의 내방가사는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남성들에 의해 출발하였다. 하지만 점차 여성들이 여성들을 교육하는 내용으로 확장하면서 전파되어 나갔다.

그리고 여성들은 내방가사를 독자적인 문학양식으로 발전시켜 자신들의 경험과 소망성취를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18-19세기 영남지방에서 유행한 여성들의 내방가사는 비슷한 사회경제의 기반을 갖춘 다수의 여성들에 의해 집단으로 향유되는 문화생활이라는 점에서 여성 의식의 개별성보다는 여성공동체의 전형성을 잘 보여주는 문학이라 할 수 있다. 18세기부터 영남지역에서 활발한 창작과 전승단계에 들어선 내방가사는 남성의 사대부가사를 모방하면서 내면화시키던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권리와 가치관을 주장하는 자아실현의 단계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3.2. 신변탄식 가사

내방가사를 학습한 사대부가의 여성들은 교훈도덕 가사인 계녀가류를 기반으로 유교의 윤리를 배우고 공부하여 여성들의 윤리와 체험, 그리고 서사적인 이야기를 표현하였다. 도덕교훈 가사인 계녀가류의 내방가사 작품들이 성행하자, 여성의 도덕성과 윤리성의 강화가 이루어져 남성들은 여성들이 가사를 창작하고 학습하는 일을 장려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여성들은 놀이문화 가사인 화전가류의 가사와 신변탄식 가사인 탄식류의 가사를 마음껏 지을 수 있었다. 신변탄식 가사인 탄식가류의 가사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

져 있다. 봉건사회의 가족제도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은 여성들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유교체제가 지닌 가부장의 질서 속에서 인고의 세월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했다.

내방가사에는 노동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여성들의 삶이 형상화되어 있다. 여성들의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삶의 고통을 탄식하며 여자로 태어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였다. 이런 유형의 가사에는 「규원가」, 「노처녀가」, 「자탄가」, 「노탄가」, 「백발가」, 「청춘과부가」, 「한별곡」, 「이별가」, 「여탄가」 등의 작품이 있다. 이런 유형의 가사는 봉건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에 의한 문화의 혁명²³⁾과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내방가사에 나타난 여성들의 삶과 관련된 탄식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생활인의 모습으로 자긍심을 표출하는 내용으로 설정한 경우가 많다. 내방가사 속에 등장한 신세한탄은 여성 자신이 노동을 통해 경제적 현실을 극복해가는 여성의 자아성취의 모습을 보여주는 담론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개척해나가는 생활인으로서의 노동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가 된다. 이렇게 노동하는 여성과 생활하는 여성은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지니게 된 것을 의미한다.

19세기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내방가사가 서술자와 주인공이 서로 일치하는 서술자의 실제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서술 시점을 보여주는 작품이 많은데, 19세기의 신변탄식의 가사에서는 서술자와 주인공의 부분적인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내방가사는 전지적 시점의 사용과 함께 장면 중심의 묘사, 희극적 묘사, 액

23) 이정옥, 『내방가사 현장 연구』, 역락, 2017, 24-25면.

자적 구조 등의 다양한 서술방식을 지닌 작품을 등장시키고 있다.

3.3. 놀이문화 가사

다음으로 화전가류의 내방가사인 놀이문화 가사는 놀이의 현장에서 풍류 생활을 즐기면서 여성의 삶에 나타난 즐거운 놀이문화와 함께 인생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기의 여성들은 일 년에 한두 번 정도의 즐겼던 놀이나 모임을 통해서 여성으로서 억압되고 규범화된 생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러한 놀이의 현장에서 내방가사가 창작되고 전승되기도 하였다. 사대부가의 여성들은 명절이나 문중의 화수회에서 동족의 남성들과 여성이 함께 어울려서 풍류나 대동놀이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가사에는 「화전가」, 「화수가」, 「웃놀이가사」, 「화조가」, 「선유가」, 기행가사 등의 작품이 있다. 여성들은 가사를 부르면서 놀이의 현장에서 일상생활을 벗어나 개인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집단의식을 고취시키면서 고달픈 현실을 견뎌내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였다. 이것이 영남지역 내방가사에 나타난 놀이문화가 주는 정서적 메커니즘의 효용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화전놀이는 자유롭고 자발적인 활동이며 즐거움과 재미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이 가지는 놀이문화는 매우 드문 기회이면서 문중의 어른들이 허락한 공식적인 놀이의 자리였다. 여성의 놀이인 화전놀이에는 구경꾼과 같은 단순한 객체적인 인물을 인정하지 않는다. 놀이에 참석하는 사람은 모두가 놀이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사대부 여성들이 놀이를 하는 순간만큼은 자신을 구속하는 일상의 규칙과 의무에서 해방되었다. 기분의 전환을 위해서 일상의 질서를 벗어나 자유롭게 노는 ‘놀이’ 그 자체를 위해서 놀이가 존재하는 것

이다.²⁴⁾ 놀이는 근본적으로 탈질서를 추구하고 있어서 놀이에 임하는 사람들은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놀이에 몰두할 수 있었다.

여성들은 화전놀이에서 놀이자체를 마음껏 즐기고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화전놀이에서 양반사대부가의 여성들은 의도적으로 동참자를 불러들이는 수법을 활용하여 함께 화전놀이에 참석한 동참자를 동류향으로 묶어서 동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거치면서 화자는 개인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정서를 표현하게 된다. 사대부가사의 화자가 개인의 정서를 표현하는 화자인 ‘나’의 표명에 중점을 두었다면, 내방가사의 화자는 ‘집단’에 기반을 두고 여성 상호간에 강한 결속력과 감성을 공감하는 ‘우리’의 정신을 표현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²⁵⁾

이처럼 여성놀이를 창작의 기반으로 하는 놀이문화 가사인 화전가류 가사의 서술특징은 여성 상호간의 연대를 통한 돈독한 공동체의식의 형성에 있다. 여성놀이에 참석한 여성들은 사대부의 여성이라는 동일한 신분을 지녔으며 생활의 수준과 교육의 정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동성의 문중이나 동족촌의 부녀자들이 경우가 많았다.

도덕교훈 가사인 계녀가류의 가사는 여성들의 행동규범에 관한 덕목을 교훈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신변탄식 가사인 탄식가류의 가사에는 가부장제도인 유교사회의 모순 속에서 여자로 태어나 고생하는 신세를 한탄하고 있고, 놀이문화 가사인 화전가류의 가사에서는 여성들의 여가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놀이문화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19세기 말기와 20세기 초창기의 새롭게 수입된 근대 신문학의 갈래와 새로운 인쇄문화인 종이책에게 주도권을 내어준 두루말이, 돌돌

24) 로제이카이와, 『놀이와 인간』, 문예출판사, 1994, 29면.

25) 류해춘, 「규방가사에 나타난 놀이문화와 경제활동」, 『국학연구론총』 15집, 2015, 86면.

말이 등의 내방가사는 오늘날에 와서는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이후에 지어진 내방가사에는 일제강점기에 저항하며 변화를 꾀하는 작품도 있었지만, 그 문학적 형상화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전통문화의 다른 갈래들인 시조, 한시, 소설 등과 함께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다. 해방을 맞이하고 내방가사가 다시 많이 창작되기도 하였으나, 1950년대 한국전쟁을 체험하면서 내방가사의 창작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현재에도 영남지방의 일부지역에서는 내방가사를 짓는 창작대회를 해마다 개최하고 서로 가사를 필사하면서 전승하고 계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안동을 비롯한 영남지역의 부녀자들은 내방가사의 새로운 보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가사의 현대화에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4. 동학가사와 근대의식

동학(東學)은 1860년 최제우(1824-1864)가 세운 사상이자 종교이다. 동학은 서양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충격을 받아 다가오는 서양의 패권주의를 동양의 정신과 사상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19세기말 조선 사회에서는 봉건체제가 지닌 지배층의 부패와 그 모순이 절정에 달했으며, 1860년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이 중국의 톈진과 베이징을 점령한 사건은 조선사회의 존립과 양이(洋夷)에 대한 공포를 가중시켰다.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基督教)는 포교의 금지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신도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동양의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는 서학(西學)으로 대표되는 기독교와 천주교에 맞서기 위한 사상이

로 유교와 불교, 그리고 도교를 포괄하여 동도서기(東道西器)라는 정신으로 무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1860년 경상도의 경주지역에서 최제우는 민족의 자주정신과 민권의식을 바탕으로 부패한 봉건사회로부터 혼란에 빠진 민생을 구제하고자 동학(東學)을 세우면서 동학가사를 창작했다.

동학을 창건한 최제우는 동학의 사상과 종교로서의 교리를 전파하여 몽매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동학가사를 창작하고 종교포덕의 수단으로 삼았다. 최제우는 당시에 서학이라고 지칭되던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기가 창건한 새로운 종교의 이름을 동학이라고 했다. 최제우를 따르는 많은 동학농민들은 당시의 지배층으로부터 고통과 시련을 받아왔던 민초들이었기에 동학가사에는 그들의 민중의식이 담겨져 있다.

동학가사의 자료집으로는 『용담유사(龍潭遺詞)』가 있다. 최제우 이후에는 상주(尙州) 동학교(東學敎)에서 간행한 100여 편이 넘는 가사의 존재가 곧바로 알려지게 되었다.²⁶⁾ 『용담유사』는 동학을 창건한 수운 최제우가 1860년에서 1863년 사이에 지은 가사집이다.²⁷⁾ 먼저 『용담유사(龍潭遺詞)』에는 8편의 가사가 전해오고 있다. 8편의 가사에는 「용담가」, 「안심가」, 「교훈가」, 「도수사」, 「권학가」, 「몽중노소문답가」, 「도덕가」, 「홍비가」²⁸⁾ 등이 있다. 『용담유사』의 ‘용담(龍潭)’은 경주(慶州)의 현곡면(見谷面) 가정리(柯亭里)에 있는 용담정(龍潭亭)에서 유래한 것이다. 지명이나 정자명이 그곳에 살던 인물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때 ‘용담(龍潭)’이란 수운(水雲) 최제우를 가리키는 의미이다. ‘유사’란 ‘유사(遺詞)’란 최제우가 ‘남긴 말씀’이란

2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동학가사』 I, II 1979, 참조.

김문기 주해, 『동학가사』①-⑥, 동학문화재단, 2009-2016, 참조.

27) 김인환, 「용담유사의 내용분석」, 『문학과 문학사상』, 열화당, 1978, 참조.

28) 정재호, 「용담유사의 근대적 성격」,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1983, 262면, 참조.
윤석산, 『용담유사 연구』, 민족문화사, 1987, 17면 참조.

뜻이거나, ‘깨우치는 말씀’이라는 ‘유사(論詞)’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용담유사』는 동학의 교주인 수운 최제우가 지은 가사를 모은 작품집이다. 20세기 이후에 상주에서 창작된 동학가사가 대량으로 발견되자, 동학가사에 대한 근대정신의 연구는 더욱 주목을 받으며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동학가사의 근대정신이란 중세의 봉건 사회를 개혁하고 부정하는 정신이라 할 수 있다.

동학가사에 나타난 남녀평등의 사상은 당시 19세기 영남지역에서 유행했던 내방가사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동학가사의 「안심가」 「도수사」 「교훈가」 등에는 독자와 청자를 여성으로 설정하여 내방가사와의 연관성 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²⁹⁾ 19세기 내방가사의 성행은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로 하여금 여성들을 포교하는 수단으로 당시에 익숙한 가사체의 문장으로 동학가사를 창작하여 포교활동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동학가사와 내방가사의 전승과 수수관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영남지역의 가사가 지닌 면모를 더욱 체계적으로 밝혀내는 작업이 과제로 남아있다.

동학가사에 나타난 근대의식³⁰⁾으로 주목받고 있는 내용은 새로운 민족국가의 수립과 민중의식을 구현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제우는 제세구민(濟世救民)의 뜻을 품고 새로운 민족국가의 수립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학가사를 창작했다. 동학가사인 「몽중노소문답가」에서는 조선말기의 사대적인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개혁하는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근대국가를 건설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1894년 전봉준이 지도한 동학농민운동은 최제우의

29) 강석근, 「가사문학의 발달사적 관점에서 본 용담유사의 특징과 맥락」, 『한국사상과 문화』 70집, 2013, 47-68면.

30) 류해춘, 동학가사에 나타난 근대의식과 남녀평등, 『어문학』140, 2018, 123-142면.

근대사상을 이어받아 군수를 축출하고 가렴주구를 근절하는 상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민운동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고 부패정치를 청산하여, 국정의 근본을 개혁하여 새로운 근대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중들의 소망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동학가사에 나타난 근대의식에는 서양세력을 배척하는 실마리로서 자주독립의 사상을 노래하고 있다. 동양에서의 근대화란 이른바 서세동점(西勢東漸)이라는 서양세력의 동진을 막으려는 척왜양의 정신과 관련이 깊다. 「권학가」에 나타난 서양세력의 동양침공에 대한 비판과 전투의지는 서양을 배격하려는 자주독립의 정신의 표출이었다. 최제우는 서학을 무조건 배척하고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서학이 지닌 보편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동학을 서학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성립된 사상이라고 보는 세간의 이해는 적절한 견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서학이 지닌 근대성과 보편성을 두루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서학이 지닌 제국주의와 침략주의의 성격을 극복함으로써 조선의 역사와 전통에 적합한 주체적인 사상을 만들고자 했던 조선의 백성으로서 민초들의 정신을 집대성한 내용이 동학이라 할 수 있다.

동학가사에 나타난 또 다른 근대정신은 국민들이 대등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정치와 참여정치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최제우는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을 고수하고 있었다. 동학에 나타난 대일의식은 늘 우리와 적대자로서의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안심가」에 나타난 일본에 대한 경계심과 적개심은 1894년에 일어난 갑오농민전쟁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동학농민군의 정신적인 실마리를 제공한 대일의식은 조선의 정치를 개혁하였으며 농민군이 조선의 정치를 개혁하는 참여정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쉬운 것은 동학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과 일본군의 연합세력에 패배

하였다는 것이며 다시 10여년이 지나자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병합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동학가사에는 근대국가의 여명을 밝혀주는 남녀평등의 사상을 노래하고 있다. 「교훈가」에는 유교질서 안에서 천대받고 억압받았던 여성과 어린이에게 인내천(人乃天)이라는 사상으로 만민 평등사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남녀평등 사상으로 나아가 근대국가의 여명을 밝혀주는 정신이라 할 수 있다. 동학의 인내천 사상은 피지배계층인 민중이 비록 현재에는 빈천을 면하지 못하는 신분이었다 해도, 다가오는 새로운 시절에는 행복한 삶을 맞이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계급과 신분의 차이가 뚜렷한 봉건사회에서 이러한 사상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동학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평등사상은 민중의 입장에서 봉건사회를 타파하는 새로운 희망이라 할 수 있다. 또, 동학가사에서는 근대국가의 여명을 밝혀주는 남녀평등을 주장하여 여성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였다. 동학이 지닌 만민평등의 가르침은 당시에 가난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여성과 민중 등의 피지배계층에게 새로운 희망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5. 가사의 전통계승과 현대화

지금까지 영남지역의 가사와 그 역사의 흐름을 시기별로 나누어서 그 특성과 새로운 변화를 살펴보았다. 영남지역은 14세기에 가사를 발생시켰고, 16-17세기에는 사대부들이 국가의 경영철학인 경세제민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대부가사를 많이 창작하였다. 18-19세기에 들어서자 영남지역의 여성들은 내방가사를 통해서 가사를 여성문학으로 발

전시켰다. 내방가사는 영남 사대부가사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가사를 창작하고 향유하여 남녀평등을 실천하였다. 여성문학인 내방가사는 영남의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여성들에 의해 오늘날까지 면면히 창작되어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문학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말에는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가 봉건사회를 개혁하려는 근대사상을 동학가사로 표현하여 가사의 전통을 새롭게 개척하였다. 이처럼 영남지역에서는 14세기인 고려말기 가사의 발생기부터 시작해서 21세기인 현재까지 가사를 지속적으로 창작하며 전승하고 있는 전통문화를 소유하고 있다.

영남지역의 가사는 70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흐름과 그 변화를 담아내고 있다. 영남지역 가사의 역사와 그 전통은 고려말기인 14세기 가사의 형성기에 사대부가사와 종교가사인 불교가사로부터 시작하였다. 16-17세기에는 많은 사대부들이 경세제민의 철학을 사대부가사에 읊었으며, 18-19세기에는 사대부가문의 여성들이 여성문학인 내방가사를 향유하고 창작하여 그 전통을 계승하였다. 그리고 19세기말에는 동학가사를 창작하여 근대국가의 수립과 민중의식을 강조하며 근대정신을 표현하여 그 전통을 이어 왔다. 이처럼 한국의 가사문학은 영남지역을 배경으로 하여 성장하고 발전하여 왔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편의적으로 영남지역의 가사를 14세기의 가사, 16-17세기의 사대부가사, 18-19세기의 내방가사, 19세기말의 동학가사, 그리고 현재진행형으로 창작되는 내방가사 등을 주목하면서 가사의 시대적 변화와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14세기 지어진 가사문학은 역사와 종교에 나타난 사대부와 승려의 세계관을 노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출발하였다. 고려말기인 14세기 말에 가사문학을 창작한 작가로는 나옹화상과 신득청이 있는데 공

교류계도 두 사람이 모두 영남지역의 영덕출신이다. 그러므로 영남지역에서는 14세기 이전에도 이미 가사형식의 문학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역 출신의 문인들이 형성기인 초기의 가사문학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14세기에 가사문학을 창작하여 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작가는 모두 영남출신의 인물이다. 이 시기의 가사로는 나옹화상의 「서왕가」, 「승원가」, 신득청의 「역대전리가」가 있어 가사문학의 발생지역으로서 영남지역인 신라문화권을 주목할 수 있다.

17세기까지 지어진 사대부가사는 60여 편인데 30편이 넘는 가사가 영남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작가가 창작하였다. 이러한 통계의 숫자는 조선시대 사대부가사의 주도층이 영남지역의 사대부이며 영남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대부들이 조선시대의 가사의 창작과 향유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6세기와 17세기를 걸쳐서 11편의 사대부가사를 창작한 박인로(1561-1642)는 「태평사」, 「선상탄」, 「누항사」 등의 전쟁체험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가사를 창작하여 이 시기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7세기의 가사는 사대부들의 변화된 경험론의 세계관인 실학정신을 다른 문학의 갈래보다도 한걸음 앞서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창작기법은 조선후기의 서민가사와 내방가사의 표현에도 등장하고 있어, 18세기 이후의 가사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까지 성행한 영남지역의 사대부가사는 18세기부터는 영남지역 사대부 집안의 여성들에게 전승되어 내방가사의 형태로 여성들이 향유하며 전승하기 시작하였다.

내방가사도 16-17세기의 사대부가사와 마찬가지로 문자와 음성을 함께 전달할 때 청자들과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었다. 내방가사의 전승현장에 가면 향유자인 여성들은 문자로 기록된 가사를 동시에 소리

로 낭송하면서 청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영남의 내방가사는 21세기인 현재까지도 여성 향유자들이 경험한 다양한 체험과 고락을 담아내면서 영남의 지역의 전통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다. 가사는 무엇보다도 문자로 기록된 문학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음성으로 낭송되어야 하는 문자와 음성이 결합된 놀이현장에서 불리어지는 음영과 낭송의 문학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내방가사를 창작하고 낭송하는 놀이문화의 현장을 전승하고 보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조가 4음보 1행의 율격을 3행으로 반복하는 정형시라면, 가사는 4음보의 1행이 무제한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서정장시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 시조의 내용이 한 글자로 흥(興)이라면 가사의 내용은 술(述)이며, 시조의 내용이 두 글자로 감흥(感興)이라면, 가사의 내용은 서술(敍述)이고, 시조의 내용이 세 글자로 정형시(定型詩)라면, 가사는 수필에 가까운 서정시(抒情詩)이면서 서정장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시조를 네 글자로 시절가조(時節歌調)라고 했으며, 가사를 시사평론(時事評論)이라고도 했다.

가사문학은 1행 4음보격의 율격을 지속하고 반복하여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학에 그치지 않고, 우리 민족이 지녀온 전통의 친숙한 율동으로 청자에게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고 설명하는 시사평론의 내용을 담을 수 있었던 것이다. 20세기 초기에는 독립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서는 가사의 연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신문물과 애국과 독립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며 많은 독자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우리들은 가사에 나타난 시사평론과 경제제민의 내용을 잘 활용하고, 새로운 미디어매체를 활용하여 가사문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여기서는 2008년에 유행한 시사평론의 내용을 지닌 21세기 가사

의 한 편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대가사로 지어진 시사평론의 가사에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지어진 「용대찬가」가 대표적이다. 이 가사는 배드민턴의 종목에서 이용대-이효정 선수의 혼합복식 조가 금메달을 따자 지어진 노래이다. 이 노래는 많은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되어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유행한 가사인데 앞으로도 이러한 시사평론과 경제제민의 21세기 현대가사가 많이 창작되었으면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알던 배드민턴 동네아집 살빼기용
 뭉쓸편견 싹버림세 용대보고 개안했네//
 스므살에 꽃띠청년 백팔십에 이승기뻔
 걸모습만 훈훈한가 실력까지 천하지존//
 스매싱한 셔틀콕이 누나가슴 파고들고
 점프마다 복근노출 쌍코피에 빈혈난다//
 용대보고 떨린가슴 코치보고 또흐뭇해
 배드민턴 선수들은 인물보고 뽑았나벼//
 효정선수 부럽구나 금도따고 용대안고
 솔직하게 메달보다 그포옹이 더탐나오//
 삼십칠분 열띤경기 금메달의 한을풀고
 드러누운 그대곁에 나도맘은 같이있네//
 사방사방 미소뒤에 윈크까지 날려주니
 터질세라 이내가슴 심장약좀 먹여주오//
 시상식때 중국선수 용대에게 눈을못떼
 나도안다 니마음을 나였어도 그랬겠지//
 계열사를 순회하며 사인회좀 열어주렴
 훈남용대 온다하면 버선발로 뛰어가리//

이처럼 700년의 긴 역사 동안에 우리 민족은 시사평론과 경제제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사를 창작하고 향유하면서 우리민족이 체험한 현실사회를 다양하게 노래하였다. 그리고 현실사회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뿐 만이 아니라 허구적인 이야기를 수용하려 가사의 주제와 내용을 다양하게 하는 문학의 표현능력을 배양하여 오늘날까지 가사를 창작하고 있다. 이제는 영남지역에서 창작과 전승의 주체가 된 가사를 현대화시켜서 보존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영남지역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사문학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안동지역에서 내방가사의 육성을 위해서 가사의 창작과 경창대회를 개최하듯이, 한국의 각 지역과 영남의 각 지역에서도 전통문화인 사대부가사와 내방가사를 계승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전국에서 전통을 계승한 가사를 많이 창작하고 낭송하여, 현대의 문화콘텐츠로 변화시켜 현대가사를 창작하는 대회를 체계적으로 개최하여 가사의 창작과 향유를 민족의 문화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서둘러야 하겠다.

오늘날 우리는 700여 년의 전통을 지닌 한국의 가사를 현대화하여 계승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먼저 가사를 창작하고 낭송하는 전문작가들을 육성시키고 가사를 즐기는 청중들과 애호자를 양성하여 가사를 민족문학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20세기까지 왕성하게 창작된 가사는 14세기 형성기부터 영남지역에서 정착되고 그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앞으로 가사를 즐기고 향유하는 국민들과 현대가사를 창작하는 새로운 작가들이 없다면, 가사는 우리 시대에 사라지는 문학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전통시가인 하이쿠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그 가치를 자랑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이 제도적인 장치로 많은 자원을 투자하여 하이쿠를 육성하고 보급하여

그 노래를 즐기고 향유하는 계층이 전 세계에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 영남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가사문학의 현대적 계승을 위해서 영남지역의 각 지방단체는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소리와 문자가 병행하는 현대가사를 창작하고 낭송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전통문화인 가사가 아무리 시사평론과 경세제민의 훌륭한 멋과 맛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도 새로운 문화콘텐츠인 한류문화로 계승하여 보존하지 못하면 사라질 것이다. 내방가사는 조선후기에 여성들이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문학세계를 개척하여 여성문학으로 성장하였다. 그리하여 내방가사는 문자와 낭송을 공유하는 문학예술의 한 형태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전통문화라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문자와 낭송으로 전승되는 전통문화인 가사를 새로운 대중매체인 유튜브(youtube)의 문화콘텐츠와 함께 한류문화인 대중가요의 가수들도 함께 즐기도록 하면서 새로운 한류문화인 현대가사를 창작하고 향유하는 작업에 열정을 쏟아야 한다.

한편 우리의 가사를 현대화하여 계승하는 작업에는 가사의 특성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경세제민을 바탕으로 한 문화생활과 우리 민족의 생활철학을 안내하는 시사평론이라는 기본적인 명제를 실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가사를 창작하고 낭송하는 생활은 현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문화라고 광고하고 홍보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법률과 조례로 전통문화인 시조와 가사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시조와 가사의 창작과 낭송 대회를 개최하고 전통문학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새로운 작업을 시행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우리 민족의 삶과 열이 녹아서 살아 있는 전통문화인 시조와 가사를 전 국민이 즐겁게 창작하고 노래하는 일상의 생활문화로 만들어야 한다.

[ABSTRACT]

The status and modernization of Gasa in the Yeongnam Area

Ryoo, Hae-choon(Sungkyul University)

We are facing the task of modernizing Korean Gasa with a tradition of 700 years to preserve and develop them. For this work, first, professional writers who create and recite Gasa must be nurtured, audiences and lovers who enjoy the Gasa, and the Gasa must be established as ethnic literature.

The Gasa, which were actively created until the 20th century, settled and took root in the Yeongnam area from the formation period of the 14th century. However, if there are no people who enjoy and enjoy the Gasa and new writers who create modern Gasa, Gasa can become literature that disappears in our time. The reason why Haiku(日本), a traditional Japanese poet is known worldwide, is proud of its value is that Japan invests a lot of resources as an institutional device to nurture and disseminate Haiku, and the class who enjoys and enjoys the song has spread throughout the world. to be.

For the modern succession of the Gasa that have grown up in the Yeongnam area to this day, local organizations in the Yeongnam area should make more efforts to support the creation and recitation of modern Gasa that combine sound and text. No matter how great

the style and taste of Gasa, a traditional culture, it will disappear if it cannot be inherited and preserved.

Key words: Gasa, Yeongnam area, Traditional culture, Modern Gasa, Ethnic literature, Haiku, the modern succession of the Gasa

[참고문헌]

□ 단행본

- 권영철, 『규방가사각론』, 형설출판사, 1986.
 김기탁, 『서경가사연구』, 학문사, 1989.
 김대행, 『시가시학연구』, 이대출판부, 1991.
 김문기, 『서민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83.
 김학성, 『우리 전통시가의 위상과 현대화』, 보고서, 2015.
 류연석, 『한국가사문학사』, 국학자료원, 1994.
 류해춘, 「16·17세기 사대부가사 연구」, 『가사문학의 미학』, 2009.
 류해춘, 『가사문학의 미학』, 보고서, 2009.
 박성의, 『한국가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박연호, 『가사문학장르론』, 다운샘, 2003.
 박지애, 『근대대중매체와 잡가』, 역락, 2015.
 백철, 이병기,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57.
 서원섭, 『가사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78.
 성무경, 『가사의 시학과 장르실현』, 보고서, 2000.
 윤석산, 『용담유사 연구』, 민족문화사, 1987.
 이능우, 『가사문학론』, 일지사, 1977.
 이상원, 『조선후기가집연구』, 민족문화연구원, 2015.
 장덕순,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정재호, 『한국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1988.
 조윤제, 『조선시가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8.
 조윤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5.

□ 논문

- 김문기, 「가사문학발생고」, 『국어교육연구』 4호, 1972, 91-116면.

- 김인환, 「용담유사의 내용분석」, 『문학과 문학사상』, 열화당, 1978.
- 류해춘, 「16·17세기 사대부가사 연구」, 『가사문학의 미학』, 2009.
- 류해춘, 「17세기 가사에 나타난 선비의 성격변화」, 『문학과언어』 12집, 1991.
- 류해춘, 「규방가사에 나타난 놀이문화와 경제활동」, 『국학연구론총』 15집, 2015, 81-109면.
- 류해춘, 「동학가사에 나타난 근대의식과 남녀평등」, 『어문학』 140집, 2018, 123-142면.
- 류해춘, 「시조와 가사의 향유방식과 그 관련양상」, 『시조학논총』 44집, 2016, 165-195면.
- 류해춘, 「임진왜란의 충격과 가사문학의 변모」, 『가사문학의 미학』, 2009, 457-487면.
- 이임수, 「'역대전리가'와 형성기의 가사문학고」, 『우리말글』 47호, 2009, 306면.

접수일: 2020.11. 25 총평일: 2020.12. 21 게재확정일: 2020.12. 23